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추석맞이 고향의 밤(Home Coming Day) 성황

온양문화원이 처음으로
출향인사들을 위한
추석맞이 고향의 밤
(Home Coming Day) 행사를
개최해 성황을 이뤘다.

추석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13일(토) 고향을 찾아 방문하는 출향인사들을 초청해 위안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고향인 온양아산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민들이 외지에 나가하고 있는 인사들을 초청하여 고향의 향수와 추억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지역민과 출향인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고향의 포근한 정을 듬뿍 실은 김시점의 ‘어머니와 정자나무’ 낭송에 이어 김시점 문화원장의 환영사와 강시장, 이명수 국회의원, 강태봉 충남도의회 의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출향인을 대표하여 동대문 아울렛 케레스타 대표인 배관성 회장이 감사사를 전했다.

고향의 밤의 백미는 출향인사들에게 환영의 뜻에서 문화원이 마련한 꽃다발 증정이 출향인들을 대표하여 주어졌다.

이어 가진 축하 공연의 자리에서는 아산 출신가수 및 국악인, 행복가족 등이 출연하여 고향의 정을 느끼게 했다.

온양문화원 김시점 원장은 “문화원이 고향의 밤 행사를 통하여 지역인사와 출향인사 간 인적네트웍을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사랑방 구실을 하고, 이러한 만남의 자리를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은 “아산시를 빛내는데 다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가자”고 제언했다.

